

무안 황토농산물 5개 품목 1021톤 수출

양파·마늘·양배추·단호박·김 9억 2500만원 소득 동남아시아·대만·홍콩 전체 수출 물량 99% 차지

무안군은 양파와 마늘 등 5개 품목 1021톤의 농산물을 동남아, 미주 등으로 수출하여 농가소득 9억 2500만 원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농산물 소비부진을 만회하고자 농협과 관내 영농조합법인이 양파 792톤, 마늘 120톤, 양배추 63톤, 단호박 36톤, 무안김 10톤을 수출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대만, 홍콩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99%를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도 일본과 미국에 무안김을 수출하였다.

군은 작년에 농산물 3000톤을 수출하였으나 올해는 5000톤 수출을 목표로 농협 관계자, 영농법인 대표, 수출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수출농가 및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양파 가공품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 실증 연구과제를 관내에서 실시해 수출업체 관계자가 방문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농산물 해외관로 개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작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양파전문생산단지 지정된데 이어



생산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수산물 수출

전문단지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

소·염소 등 '우제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영암군은 구제역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소·염소 1,434농가, 6만8천두)에 대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10월 중에 실시한다.

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여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2가(O+A형) 백신으로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을 통해 구매(보조 100%)해야 하며,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전액 무상으로 공급된다.

백신 접종 방법은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가접종,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로 구성된 접종반을 편성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난 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을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해당 농가에 백신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 및 외국인 근로자(16개 언어로 자막)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자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유튜브('농러와TV')로 전환 배포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소독과 농가의 자발적인 백신 접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접종반의 백신접종 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영암군이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공동주택·건축물 370개소...12월까지 청소의무 이행해야



목포시가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저수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

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에서는 관내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70개소에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청소 후 결과와 증명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2월 까지 반드시 청소와 수질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정수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시가지 집중호우 피해 예방 대책 나서

교천제·사방댐 등 10개 저류시설 설치가능 대상지 답사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7~8월 영광군에 내린 2차례의 집중호우로 시가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 대책에 직접 나섰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5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과 함께 교천제, 사방댐 등 10개소의 대상지를 현장 답사하여, 초기 우수 저류시설의 설치 가능 및 실효성 등을 조사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상지는 우선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여건상 시가지에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하는 어렵지만 초기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을 여러 곳에 설치하면 시가지 침수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광군은 그동안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저수지 사전 물빼기, 하천, 급경사지 등 재해 예방사업 추진,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 등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기록관 이달 27일 개관



지역의 귀중한 역사와 기록,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할 전남 함평군 기록관이 오는 27일 개관한다.

6일 함평군은 군청 인근 옛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연면적 589.66㎡, 지상 2층 규모의 함평군기록관이 이달 27일 공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현대식 기록관이 필요하

고 보고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기록관 신축을 추진했다.

특히 신축 기록관에는 열람·사무실과 보존서고, 향음·향습 공기순환 시설, 가스식 자동 소화 시설 등의 최신식 보존 시스템이 설치됐다.

또한 약 20여만 권의 일반문서와 행정박물,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서가(모바일랙) 94동과 기록 관리 업무를 전담할 기록연구사 등 전문 인력도 상시 배치했다.

군은 새로 개관하는 함평군기록관을 통해 기록물 생산·이관·평가·폐기·보존 등의 기록물 관리 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